

한글의 입력 자판에 대한 특허와 표준 문제

안마태

2,000 년도 여름에 중국에서 있었던 동아시아 지역의 문자 입력 학술 대회가 있다기에 여기에 영문으로 된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다. 예상 이외로 반응이 좋아,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초청을 해주어서 그 해 10 월에 이 세 나라에 강의 여행을 떠났다.

한국에서의 초청은 카이스트의 전산학과 김진형 교수가 해주어서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60 년대에 한국에서 성공회라는 교단의 신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신학생들에게 영어와 회랍어를 가르쳐 본 경험 말고는 우리말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다 나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전산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좀 힘든 일 중의 하나였다. 40 년간을 영어 문화권에서 살았기에 말도 서툰데다가 컴퓨터 분야의 전문 용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에 김교수님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실의 연구원들을 동원하여 내가 그동안 연구해온 한글의 문자 입력 분야 이론을 윈도우로 키보드 드라이버를 개발해 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나는 그 후 여러 번 카이스트를 방문하여 이들과 함께 이 키보드 드라이버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때에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가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모두 도적들이기에 나의 오래도록 연구해온 한글 모아치기 동시 입력 방법도 도적 맞을 가능성이 많기에 빨리 특허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특허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과 한국에 특허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나의 특허권을 내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 사회사업 단체에 기증하여 한글 분야 연구기금과 장학기금으로 쓰도록 조치하여 두었다.

그런데 작년에 아주 괴상한 일이 두 가지가 생겼다.

한 가지는 미국의 특허는 거의 동일한 특허를 9 개(그 중 3 가지는 한글과 관련된 특허)를 심사한 후에 한가지도 이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며 특허를 허용하였는데, 한국 특허는 꼭 한가지 다른 특허를 심사하였는데, 그 한가지는 나의 글판에 있는 옛 자모 4 자가 이미 특허가 나가 있고, 나의 키보드에 옛 자모 4 자가 들어 있어서 특허가 안 된다고 했다. 또 한가지 이유는 통상인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개발 가능한 자판 배열이므로 특허법에 저촉되므로 특허를 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글의 옛 자모 4 자에 특허가 나갔다는 사실도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나는 25 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어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판배열을 아무나 배열을 할 수 있는 자판이라니 웃겨도 보통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후 우리 변호사에게 다시 신청을 하도록 했고, 만약에 다시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을 세워 두었다. 다행히 미국 특허 허가서를 첨부 해서 두 번째에는 허가는 나왔다. 나의 쓸데 없는 가외의 변호사 비용과 재신청 비용도 아깝기는 했지만, 그보다도 이런 공무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나는 이런 글을 남겨 놓아 우리 세대가 어떤 고통을 겪어 왔는지를 후대에 꼭 알려주고 싶다.

두 번째로 괴상한 일은 작년 4월에 카이스트는 과학기술부 청사에서 안마태 소리글판에 대한 언론 보도를 나가게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키보드가 공식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태어난지 4개월 밖에 안된 이 키보드를 산업 자원부 표준국 자판전문 위원회에서는 이 자판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보고서를 내어 놓았다. (2003년 8월 20일자의 자판 전문 위원회 회의록 참조)

내용은 이북의 사회 과학원이 내어 놓은 안마태 소리글판의 순차입력 실험 결과, 결함이 많다고 했다. 사실은 이 보고서에는 약간의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수정한다면 3벌식으로 된 이 자판이 훌륭한 자판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런 결함은 카이스트가 이미 그들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한 후(2002년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정부의 한 부처에서는 (카이스트는 과학 기술부 소속) 국민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글판이 현재의 표준 자판을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앞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한 자판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인 산업 자원부는 이와는 정 반대의 내용을 공식 회의 기록으로 남겨 놓았는지 조국을 떠난 지가 오래된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최근에야 이 웃기는 이야기들과 수수께끼가 한가지씩 이해가 가게 되었다. 최근 일어난 전국으로 확산된 촛불 시위에서였다. 나는 이 시위를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온라인으로 지켜보았다(한국의 초저녁은 이곳 켈리포니아 시간으로는 새벽이기 때문에).

10만이 넘는 군중이 질서 정연하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깨끗하게 주위를 정돈하고 삼시간에 해산하는 것을 보고, 나는 우리 민족이 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 민족임을 느꼈다. 오랜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많은 데모를 하였기에 데모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독재와 싸운 첫 번째 큰 데모는 4.19였고, 그 당시에 나는 군대를 다녀온 만학도였기에 자연스럽게 학생 데모의 리더였었고 그 당시의 데모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기에 좋은 비교가 되었다. 거의 반세기 전에(1960년 4월) 내가 데모를 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서울의 세종로), 나의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들이 하는 데모는 너무나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웠다. 당시의 경찰들은 숨어서 소총과 기관총을 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의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 경찰은 옆에서 줄서서 지키고 서있으면서 노래의 장단에 맞추어 고개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갖었었다.

그러나 한가지 전연 변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이것만은 우리가 빨리 고쳐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정경 유착의 문제이다.

이번에 국민이 분노하여 거리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차떼기로 돈 먹은 국회 위원들이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선거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식으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숫자로 대통령 탄핵을 밀어부친데 있다. 그런데 분노한 국민들은 이런 국회 위원들을 국회위원을 시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버르고 있고 각 정당마다 여자들은 그래도 대가 약하니까 좀 덜해먹는다고 저마다 이들을 앞장 세우기에 한참 바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어가는 것이 있다.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은 한쪽만 (정치쪽) 끊는다고 해결이 될 수는 없다. 양쪽 고리를 다 잘라야지 한쪽은 남겨두면 이것은 더 능숙한 차떼기 방법이 생긴다.

돈이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마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쪽이 계속 있는 한, 받는 쪽은

아무리 같아 치위도 새로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회 의원만 같아치울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재벌 기업들을 같아 치위야 한다. 유 아이 forum 회원들(나는 이 포럼의 특별 고문으로 있음) 중에 재벌 기업에 속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나는 욕 먹을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다. 한국에서 재벌들을 빨리 퇴출시키지 않는 한, 제 이의 아이 엠 에프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차떼기 시스템은 더 발달되지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들 재벌들이 비자금이라고 하는 훔쳐서 감추었다가 짐차로 실어 나른 돈은 기업 활동에서 생긴 이윤에서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이 급료나 후생비로 나누어 가질 몫이거나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윤 배당으로 돌아갈 돈이었다. 그것을 정권 가진 사람들에게 갖다 바친 것은 큰 절도범이 훔친 돈을 힘있는 두목들에게 갖다 바친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들은 저희들이 이 도적들의 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도적들은 잡아 가두지 아니하고 돈 받은 사람들만 잡아다가 죽이고 있다. 이유는 국가 산업 발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에 어진 국민들은 이 큰 도적들은 그래도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눈감아 주어야 한단나? 국민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경 유착 문제는 계속하게 되며 오히려 이들의 먹이 사슬은 지능적으로 발달하여 중국에는 컨테이너로 현금을 실어 나르는 때가 오고, 짐차가 아니라 이번에는 배로 실어 나르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경험한 웃기는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나의 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 신청은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내용과 꼭 같은 것이었다. 영어로 된 것은 미국 정부에 내었고 한글로 된 것은 한국 정부에 내었다. 미국 정부 관리는 성실하게 9 개의 유사한 특허 내용을 비교 심사하여 18 개월 만에 허가해 주었고, 한국 정부 관리는 1 개의 유사한 내용을 비교 심사하여 18 개월 만에 특허 자격이 없다고 해서 특허를 거부 하였다. 한글의 종주국에서는 거부를 하고 다시 미국의 특허 사본을 첨부하여 2 차 신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6 개월 후에 허가를 해 주었다.

더 웃기는 이야기는 한국 정부의 한쪽에서는 나의 키보드의 동시 입력기를 개발하도록 열심히 도와 주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줄려고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이 아주 나쁘다고 열을 올리면서 목청을 돋우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단순한 분석은 이렇다. 카이스트에는 순수한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사비를 들여가며 오래도록 연구 개발해온 이 한글 동시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우리 민족이 이 정보화 시대의 국제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데에 있고, 산업 자원부는 이 차떼기 도적들과 결탁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저지하는데 온 정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좀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키보드의 제작과 판매를 거의 대부분 재벌 기업들이 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2 벌식 표준 자판은 서술이 퍼던 박정희 군사정권 때인 1969 년에 테레타이프 용으로 처음 만들어 졌다. 그 후 광주의 양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이 바로 그 해 1982 년에 컴퓨터의 표준으로 만들었다. 이들 군사 정권의 온상에서 자란 이들 재벌 기업들은 경제 사정이 좀 나빠지면 기업 환경이 나쁘다고 호들갑을 떨어서 별의별 정부의 특혜를 다 받는다.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몸집을 불려야 한다면 별의별 사업을 다 벌려서 문어발로 적은 새끼 고기를 다 잡아 먹는 식으로 적은 회사들이 경쟁을 못하게 다 잡아 먹어버렸다. 그래서 단순한 제조 과정을 거치는 자판의 제작과 판매도 모두 재벌 회사가 다하고 있다.

내가 작년에 안마태 소리글판의 키보드 제작과 한글로 중국어 프로세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에 좀 머물렀다. 거기서 내가 놀란 사실은 별 기술 없이도 조립이 가능한 단순한 키보드 조립 공장이 한국의 재벌회사가 하고 있어서 너무나 실망했다.

이런 재벌 회사들의 머슴 노릇 해주고 녹을 먹고 사는 산업 자원부이기에 미국서 온 촌놈이 무슨 컴퓨터의 동시 입력기를 만든다고 하느냐며 뒷통수를 한번 췌게 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온 정력을 다해서 이들 산업자원부로부터 표준업무 그리고 특허 업무를 분리 시켜서 재벌 기업과의 먹이 사슬을 끊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느끼기 한이 없는 현재의 2 벌식 표준 자판 가지고 영어식으로 자모 한지씩 입력하는 것을 버리고, 모아진 한 글자씩 한꺼번에 입력하는 새로운 입력법으로 바꾸게 되어 우리 나라가 새로운 정보 사회에서 앞서가게 될 것이다.

표준 업무를 산업 자원부에서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는 컴퓨터의 입력 분야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표준 업무가 산업 자원부에 남아 있는 한 전화기 한글 입력도 표준을 정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들이 서로의 입력 시스템을 한 발자욱도 양보 안하고 이를 비호하는 기관은 방관만 하고 있어 희생은 국민들만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민들이 전화기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도 한글 입력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다.

표준과 특허는 기업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닌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의 것이어야 한다. 발명품은 발명자가 자의로 양도하지 않는 한 발명자의 것이어야 하고 특허법은 발명자를 보호하는 법이어야 한다. 앞으로 과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려면 이들을 재벌 들로부터 분리해 놓아야하고, 훌륭한 과학작가 많이 나오게 할려면 이들을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표준도 국민을 위한 표준이어야 그 나라가 흥하고, 재벌 중심의 표준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있다.